

너무 늦게 출발한 5·18정신계승위 걱정된다

통합조례 제정 후 7개월간 심의기구 공식... 16일 뒤늦게 위원 위촉식 내년초 국비 추진사업 앞두고 사적지 활용 등 시급한 안전 처리 '빠듯' 5·18과 점점 없는 위원 적지 않아 사전지식 없이 거수기 전략 우려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의 핵심으로 꼽히는 '5·18 정신계승위원회' (이하 정신계승위) 위원들이 조례 제정 7개월만에 위촉된다.

5·18 규모역 성격화 사업, 사적지 관리 등 현안이 산적했는데도 심의 기구를 공식으로 놔두는데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위촉식을 열기로 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오는 1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신계승위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신계승위는 유무형의 기념사업과 정책을 총괄·심사·지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5·18기념사업위원회를 없애고 신설한 심의 기구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평가, 기념사업의 추진계획과 시행방안, 5·18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국제화·교류협력 등을 비롯해 사적지와 기록물 등의 지정·보존·관리·복원·활용·지정제, 5·18 유공자·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예우 및 치유, 진상규명·외국 대응 등 5·18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정신계승위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시급한 안전에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광주 곳곳에 남아있는 5·18 사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광주시 동구 공동에 있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 가족 보존사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개관에 앞서 올해 안에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해 정신계승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동구 불로동의 옛 적십자병원 또한 예산 175억원을 투입해 보존하고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계획을 세우고 내년 정신계승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광주중앙역 광장 5·18 사적지 지정안, 서

구 화정동 505보안부대 옛터 활용방안 등도 심의 대상이다.

북구 망월동의 구묘역 성격화 사업도 내년 실시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계승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내년 2·3월께 국비 예산 성립 및 집행은 하기 전에 서둘러 심의를 마쳐야 해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정신계승위 위원 수가 30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계 5·18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사전 지식을 알려 줄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계승위 위원들은 시장 추천 11명, 자치구청장 추천 5명, 시의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2명, 공법단체 오월 3단체장과 5·18기념재단 등 5·18 관계자 4명, 시민단체 4명 등으로 꾸려졌다.

이 중 시장 추천 위원들은 각각 학계 2명, 법조계 1명, 종교계 2명, 교육계 1명, 공공기관 1명, 시민사회 1명, 청년 1명, 언론계 1명, 국외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 중에는 문화·종교·교육·인권 단체 소속으로 5·18과 별다른 접점이 없던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현안 사업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일정을 앞당겼다가는 위

원이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첫 회의의 안건은 임원 선출, 소위원회 구성 등 2가지만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한 회의를 하려면 해를 넘겨야 할 판이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할 과제도 없는 데다 회의의 안전과 일정, 운영 방향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사회적 합의의 기구로서 모두의 의견을 모으려다 보니 구성이 늦춰지기도 했다"며 "첫 회의만 열리고 나면 이후에는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해 즉각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장 선거 금품 의혹'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전남경찰, 강제수사 나서

경찰이 후반기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주시 기초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나주시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일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A의장 등 기초의원 10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후반기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시의원 총 16명(더불어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중 의장 A씨를 포함해 대부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A의장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상급병원

일반의 충원도 '난항'

전남대·조선대병원 지원자 없어

광주·전남 상급병원이 의정감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반의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정감등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일 중단됨에 의정감등이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계속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된 제3차 진료전담의사 모집 공고의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 모집공고에서 채용은 4명에 그쳤다.

조선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진료교수와 일반의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다.

양 대학병원 정부의 의료 개혁 1차 과제인 '중환자 중심 병원' 전환 준비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만큼 일반의가 들어오면 병원 구조변경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복귀 상황을 산정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질은 없다"면서 "정부정책에 맞춰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라니로 착각, 낚시객에 공기총 "탕"

병원 이송 수술 후 치료 중 나주경찰, 60대 엽사 입건

고라니로 착각하고 낚시객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60대 전문 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낚시객을 공기총으로 쏜 A(66)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나주시 남평을 지석천 인근 뚝방길에서 혼자서 낚시 중이던 B(57)씨를 공기총으로 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다. 또 허가받지 않은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있다.

공기총을 맞은 B씨는 곧바로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잡으러 나갔다가 B씨를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으로 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엽총 소지허가는 받았으나 공기총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에어컨 설치기사 사망' 삼성전자 대표이사 소환 검토

20대 노동자가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열질환으로 숨진 사건(8월19일자 광주일보 6면)과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소환조사가 전망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유족의 고발에 따라 에어컨 설치업체 대표와 팀장,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 총 4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3일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기사 A(27)씨가 정규직 출근 2일차에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당시 발주처는 전남도교육청이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은 삼성전자다.

광주노동청은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컨 설치업체 대표와 팀장에 대한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영책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보고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에어컨 설치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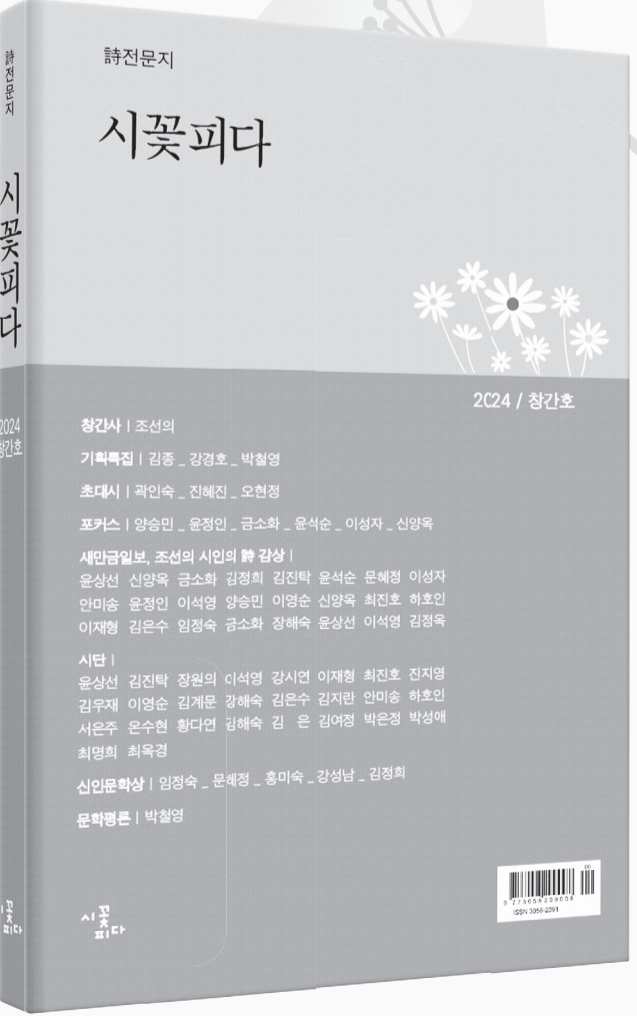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창간사 | 조선의 기획특집 | 김홍 · 강경호 · 박철영
초대시 | 박인숙 · 진혜진 · 오현정
포커스 | 양승민 · 윤정민 · 권소하 · 윤석순 · 이성지 · 신영욱

세민클럽보. 조선의 시인의 韓 강상!
문상선 신영욱 권소하 김경희 김진택 윤석순 문혜정 이상자
안마송 윤정민 이석영 양승민 이영순 신영욱 최진호 최호민
이재형 김은수 임정숙 권소하 정혜숙 문상선 이석경 김경욱

시단 | 문상선 김진택 정윤희 이석영 김시연 이재형 최진호 김지영
김우재 이영순 김계문 강해숙 김은수 김지민 안마송 최호민
서은주 운수현 황다연 김해숙 김 은 김여정 박은경 박성애
최명희 최옥경

신인문학상 | 임정숙 · 문혜정 · 홍마유 · 강성남 · 김경희
문학평론 | 박철영

2024 / 창간호